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 성경: 느헤미야 4장 14-18절

Tag: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15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16 그 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17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4:14-18)

아닥사스다가(아하수에로왕의 아들) 왕위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다. (B.C.444경)

당시 예루살렘은 스킴바벨 성전이 건축된 이후였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있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치안이 유지되지 않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몹시 걱정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재가를 얻어 조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서 수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

다. 그러나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이 깨져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이 모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과 성문 재건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다.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였다.

그는 사전에 현장답사를 통해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군사력을 잘 배분하여 핵심 길 뚫을 지키게 하였다.

그는 일꾼들의 작업량을 잘 계산하여 합리적으로 일을 분산 시켰고, 작업할당제를 도입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성벽을 완성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자 산발랏(사마리아 총독)과 도비야(의문의 암몬사람. 그는 누군가의 종이였으나 수완이 뛰어나 후에는 귀족 가문(아라)과 결혼도 하고 성전에서 방을 차지하기도 한다.)가 나서서 이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상업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를 막아서 자신들의 산업에 손해가 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겔으로는 왕께 반역하려고 성벽을 쌓는다고 비난하고, 도비야는 심지어 조롱하는 말을 서슴치 않았다.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 4:3)

그들은 악한 거짓말과 비아냥거림을 서슴치 않았으며, 실제로 전쟁을 일으켜 성벽재건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전에 그런 의도를 알아차리고 군사적인 경계태

세를 유지한 채 성벽재건을 완성시켰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든든한 국방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여론이나 사상적 공격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

베트남의 패망을 보면 이 사실은 자명해진다.

당시 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전세계 3위의 전력, 공군은 4위의 전력을 자랑했다. 미국의 경제원조 70억달러, 탱크 400대 지원, 비행기 700대 지원(총 1800대). 그에 비해 월맹의 군사력은 형편없었고, 경제력 또한 비참했다.

그러나 월남에는 간첩이 1만명 정도, 인민혁명당원 4만명, 이들에게 동조하는 자 모두 합해도 전체 10만명 정도 전체 인구의 0.5% . 이들이 반미, 친 월맹 운동에 힘썼고 국민들은 이들의 논리에 속아 넘어갔다.

고관들의 부정부패.

민심 이반행위, 끊임없는 데모, 언론의 자유 주장, 거짓말 거짓보도, 정치인들의 거짓 평화 협상, 동족끼리 싸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반전 반미 감정 자극.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 월남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월남의 보트피플의 최후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왜 북한이 한국의 기독교 세력을 공격하는가? 왜 언론이나 좌파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공격하는가? 그동안 한국교회의 역할 때문에 끊임없는 북한의 계략들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한국기독교의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 한국은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반공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이미 북한식 사고방식에 물든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들과 대립하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또한 sns를 이용해서 검증되고 바른 소식들을 전파하고 기독교인의 진정성을 드높이자.

반드시 검증되고 바른 소식들, 건전하고 악하지 않는 소식들을 전파하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소망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시장경제 이야기 성경: 마태복음 25장 20-21절

Tag:

20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규재 TV에 게시된 내용을 발췌함)

우리나라는 과거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60-70년대의 경제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140여개, 이들 중 (67달러에서-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2만불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반세기만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따진다면 더 높음. 구매력평가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32000달러 수준. 일본 바로 다음 순위. EU의 평균 실질 국민소득 보다 대한민국이 조금 높음. 한 세대 만에 절대 빈곤을 벗어남. 기적인가?

How, Why?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획기적인 것은 아님. 러시아산.

-근면한 국민성? 북한도 마찬가지.

-수출주도형 개방형 전략?

-독일로 간 광부와 간호사?

-중화학공업 전략?

but 보다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개방형 시장 경제체제’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왜냐면 북한과 남한은 똑 같은 민족, 다 같이 48년도에 정부 시작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계획경제체제’

-이것이 독재나, 공산주의 위기, 경제 위기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74년 월남 패망 이후 월남에 진출해 있던 한국 건설 기업들이 중동으로 발길을 돌림. 중동건설 붐이 일어남.

-서독에서 1억4천만 마르크 빌림. 봉급을 담보로 잡음. 경부선 고속도로.

-실질소득 만불이 넘어가면 인권, 삶의 질, 여가, 환경 등을 따지는 단계가 온다. 80년대 중반. 근로 시간 단축.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공급연결망은 지시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 공급연결망이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이루어짐. 시장경제의 기적과 같은 자율 시스템.

시장 성공의 비밀

가격의 신호기능

가격의 배분기능 -> 사익과 공익의 일치

합리적 이기심

시장경제의 특징

1. 분산된 의사결정 - 북한은 계획된 계획경제

2.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질서 - 북한은 사회개혁 사상 이데올로기
에서 시작